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국인, 연말 시즌 계속 지출
- CNBC: 인플레이, 미국인 경제 바라보는 입장에 먹구름 드리워

[주택]

- NYT: 뉴욕시, 부유한 지역에 저렴한 주택 착공 계획
- Bloomberg: 미 주택 가격 계속 기록 경신... 9개월째 상승중

[에너지]

- Bloomberg: 홍해 지역 향해 긴장 상태로 오일가 상승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홍해 운항 리스크, 글로벌 교역에 타격 주나?
- CSIS: 글로벌 경제: 소프트 랜딩? 금년 마감하면서 금리 현행 유지
- WSJ: 글로벌 인플레이션, 2024년 말까지 정상 회복 가능할 것

[미중 무역]

- WSJ: 재선 도전 트럼프, '눈에는 눈' 무역 전쟁 준비한다
- Bloomberg: 중국, 신장 관련 미국 기업과 단체에 제재 부과

[전기차]

- WSJ: 전기차 충전 기업들, 내년에 더 어렵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소매업체들, 반품 비용 증가로 대응에 나서다
- Bloomberg: 삼성전자, TSMC에 이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 연기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Shoppers Kept Spending This Holiday Season

미국인, 연말 시즌 계속 지출

-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측정하는 Mastercard SpendingPuls의 조사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 소매 매출이 3.1% 상승했다.
- 물가 상승과 강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추세라는 것.
- 쇼핑객들은 크리스마스 전 주물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마지막 시간까지 쇼핑을 기다렸다. 12월 23일 토요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최대 매출로 추정되고 있다.

WSJ 기사

CNBC: Inflation has created a dark cloud over how everyday Americans view the economy

인플레이션, 미국인 경제 바라보는 입장에 먹구름 드리워

- 최근 수년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노가 소비자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심지어 이같은 불만은 강한 노동시장, 주택 가치의 상승, 주식 시장의 반등으로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으로 보는 이들에게도 나타났다.

CNBC 기사

[주택]

NYT: New York City Aims to Build Affordable Housing in Wealthier Neighborhoods

뉴욕시, 부유한 지역에 저렴한 주택 착공 계획

- 뉴욕시 주택 보존 및 개발부는 그동안 저렴한 주택 개발에만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새로운 개발 계획에 따르며 저렴한 주택과 시장 가격의 주택을 모두 포함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높은 시장 가격 아파트의 수입이 시 재정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주택은 저렴한 주택이 건설되지 않은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NYT 기사

Bloomberg: US Home Prices Extend Records, Rising for a Ninth Straight Month

미 주택 가격 계속 기록 경신... 9개월째 상승중

- 미 주택 가격이 9개월째 상승하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구매자들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구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S&P CoreLogic Case-Shiller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가격이 9월에 비해 0.6% 상승했다.
- 미 전역의 20개 도시 주택 가운데 19개 도시에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Rises After Red Sea Ship Incidents Keep Tensions in Focus

홍해 지역 항해 긴장 상태로 오일가 상승

- 글로벌 벤치마크 유가인 브렌트유는 지난주에 3% 이상 상승 한후에 배럴 당 80불을 상회해 지난 10월 이래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였다.
- 미국 서부 텍사스주 중질유는 75달러까지 상승했다. 화요일 영국 해군에 따르면 예멘 연안에서 4 해리 떨어진 곳에 폭발과 미사일이 목격됐으나 선박과 승무원은 무사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Attacks on shipping in the Red Sea are a blow to global trade

홍해 운항 리스크, 글로벌 교역에 타격 주나?

- 최근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여러 차례 홍해 지역 선박들에 공격을 가한 가운데, MSC나 Maersk 같은 거대 해운사들이 이 지역의 운항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북유럽을 잇는 해상운송 기간은 대략 31일에서 40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해상 물류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 그러나, 컨설팅 기업인 Vespucci Maritime의 Lars Jensen는 이번 홍해 리스크가 글로벌 무역에 마개(cork)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한다. 해운 산업은 상당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세계 공급망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한편, 컨설팅 기업인 Drewry의 글로벌 지수에 따르면, 표준 컨테이너 운송비가 1만 불을 넘었다. 일부 노선에서는 심지어 현물 운임률이 2만 불을 넘기도 했다. John McCown Container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해운사들의 총순이익은 2천1백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경우, 해운사들은 새로운 배를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미 신규 선박들이 해운사에 도착하고 있다. ING은행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해상운송 수요는 저조했지만, 전 세계 선박량은 올해 9%, 2024년에는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해상 운송 역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홍해 리스크로 인한 항로 변경이 팬데믹 때만큼의 공급망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The Economist 기사

CSIS: Goeconomics Bi-Weekly: A Soft Landing? Interest Rates Held Steady as the Year Ends

글로벌 경제: 소프트 랜딩? 금년 마감하면서 금리 현행 유지

- 미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영국 유럽 연합이 올해말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미국 연준 관리들은 내년에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우존스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 미 재무부 옐런 장관은 경기 악화없이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 11월 미 실업률은 3.7%로 감소했고, 시간당 평균 소득은 0.4%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 오픈 숫자는 분석가들은 놀라게했다.
- 연준이 선화하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이다.
- 글로벌 무역은 중동을 향해하는 선박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추가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 중국은 수출 모멘텀이 미약한 가운데 신용 강등에 직면해 있다. 무디스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 중국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다.
- 미국은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첫번째로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회사 BAE 시스템에 그랜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간에 균형을 맞추는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다.

CSIS 기사

WSJ: For Much of the World, Inflation Will Be Normal in 2024—Finally 글로벌 인플레이션, 2024년 말까지 정상 회복 가능할 것

- 전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3년 내로 인플레이션율이 평범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들은 변동 물가인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물가지수가 미국, 유럽 그리고 일부 신흥국 시장에서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연 2.2%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전문가들은 늦어도 2024년 말까지는, 세계 평균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에 근접하거나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 또한, 감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향상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줄 수 있다.

WSJ 기사

[미중 무역]

WSJ: Trump Is Primed for a Trade War in a Second Term, Calling for 'Eye-for-Eye' Tariffs**재선 도전 트럼프, '눈에는 눈' 무역 전쟁 준비한다**

- 자신을 '관세 맨'이라고 부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도전에 임하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새로운 관세 부과 보호무역 조치를 준비중이다.
- 한마디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관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 Sanctions US Company, Two Researchers Over Xinjiang Work**중국, 신장 관련 미국 기업과 단체에 제재 부과**

- 중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한 기업과 두 인권 단체를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 오늘 화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 Mao Ning 는 중국 내 모든 Kharon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언급했다. Kharon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하며, 노동 착취 및 강제 노동과 관련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 이런 중국의 대응은 상징적인데, 제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중국 내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신장 지역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가한 제재에 대응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WSJ: Investors Sour on EV Charging Companies**전기차 충전 기업들, 내년에 더 어렵다**

-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ChargePoint Holdings는 올해 74%가, Blink Charging는 67%가 EVgo는 21%가 떨어졌다.
- 이 업계 기업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수익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 예측하며, 전기차 시장의 선두 기업인 테슬라가 2024년에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 관련 기업 경영진들은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높은 가격과 전기차 인도 지연이 전기차 수요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 충전 기업들은 '닭과 달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선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전기차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들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Retailers Are Bracing for Their Postholiday Returns Hangover 소매업체들, 반품 비용 증가로 대응에 나서다

- 미국인들은 올해에만 5조 달러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미 소매연합회(NFR)에 따르면, 그중 반품된 비중이 16.5%에 달해 8천1백 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두배 상승한 것이다.
- 반품은 업체들의 수익 마진을 줄이고 있으며, 소매업체들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반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이에 기업들은 올해 손실을 줄이고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패스트 패션 업체들인 H&M과 Zara는 고객들에게 반품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Old Navy는 반품률을 낮추기 위해 옷의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마존은 자주 반품되는 품목에 경고알림을 보내, 구매자가 구매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amsung Delays Production at New US Factory to 2025, Daily Says

삼성전자, TSMC에 이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 연기

- The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서 대량 생산 계획을 연기했다.
- 이 기사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책임자 연설을 인용하며, 1백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이 2025년에 시작될 것이라 보도했다.
- 이러한 소식은, 삼성의 라이벌 기업인 TSMC가 애리조나 팸(fab)의 생산을 2025년에서 다음 해로 연기할 것이라 발표가 나온 후에 나왔다.
- 삼성과 TSMC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연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잠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내년말 대부분 국가 인플레이션 2%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WSJ "최근 3개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하락... '크리스마스의 기적' 평가"**

내년 말이 되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인 2%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학자들과 주요 금융 기관 분석을 활용해 24일(이하 현지시간)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유럽, 일부 신흥국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11월 말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연 2.2%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진 것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 국가 인플레이션이 2%를 회복할 것으로 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